

과테말라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

안 수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서론

1.1. 과테말라 개요¹⁾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는 과테말라는 격동의 시대를 겪어 왔다. 천년의 마야문명과 300년의 스페인 지배 속에서 살아오다가 1821년 독립 후 다시 군사정권과 36년의 게릴라전을 경험한 과테말라는 1996년 정부가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지금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평화조약 체결 당시 약 20만 명의 사망자와 100만 명의 난민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과테말라는 지리적으로 중앙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와 멕시코 사이의 북태평양과 온두라스와 벨리즈 사이의 캐리비안 해역을 접하고 있다. 국가 총 면적은 전 세계의 107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109위)보다 조금 큰 면적을 갖고 있다. 전체 면적의 41.2%가 농경지이며, 이 중 경종작물 면적은 14.2%, 다년생작물 면적은 8.8%, 영구초지면적은 18.2%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는 해안지대와 내륙의 산지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기후를 갖고 있으며, 대

* (crystalism14@krei.re.kr).

1) 본 장은 CIA의 The World Factbook2015와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과테말라 국가개황을 참고하여 작성함.

부분 아열대성 기후를 나타내고 특히 저지대는 덥고 습하다.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과테말라는 11월~4월이 여름이자 건기이며, 5월~10월은 겨울로 비가 주로 내리는 계절이다. 다양한 기후를 갖고 있는 만큼, 과테말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그림 1 과테말라 지도



자료: (www.google.co.kr/maps/place/과테말라).

과테말라에는 현재 활동 중인 화산들이 있기 때문에 종종 큰 지진이 발생하며, 캐리비안 해안지역은 허리케인과 열대성 태풍에 취약하다. 화산 중에는 시에라마드레 지역(Sierra Madre)의 산타마리아(Santa Maria)와 파카야(Pacaya) 등이 있으며, 화산활동을 시 내를 덮은 적이 있는 화산들이다. 환경과 관련하여 과테말라에서는 페텐 열대우림(Peten Rainforest)의 삼림파괴, 토양침식, 수질오염 등이 이슈화되고 있다. 과테말라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다양한 국제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데, 종의 다양성(Biodiversity), 기후변화(Climate Change)부터 선박오염(Ship Pollution)과 고래포획금지(Whaling)까지 총 14개의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과테말라의 인종은 메스티조계²⁾와 유럽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밖에도 고지대

의 키체족(K'iche', 9.1%), 카크치켈족(Kaqchikel, 8.4%), 케크치족(Q'eqchi, 6.3%), 맘족(Mam, 7.9%), 마야인(8.6%) 등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고 있다. 공식 국어는 스페인어와 23개의 아메린디언 언어들이 있으며, 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다. 2015년 7월 기준 약 1,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구가 0~14세와 25~54세에 집중되어 있다. 인구 성장률은 2015년 기준 1.82%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인구의 51.6%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과테말라는 대부분 영양결핍과 높은 문맹률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저개발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도시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인구의 22.5%는 여전히 취약한 위생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1.6%는 비위생적인 수질을 이용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농촌인구의 50.7%가 위생시설을 접하지 못하고 있고, 13.2%는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 문맹률은 12.6%로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주요 사회 및 개발지표에 따르면, 절대빈곤 계층비율은 2011년 기준 54%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국가 도로 포장률은 45%에 불과하다. 인터넷 사용자 수는 100명 당 20명에 불과한 반면, 이동통신가입자 수는 100명 당 140명으로, 이동통신을 통한 정보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과테말라의 주요 사회 및 개발지표

비위생시설 사용률	36.1%(2015)	비위생수질 사용률	7.2%(2015)
(도시인구비율)	22.5%(2015)	(도시인구비율)	1.6%(2015)
(농촌인구비율)	50.7%(2015)	(농촌인구비율)	13.2%(2015)
절대빈곤계층비율	54%(2011)	인터넷사용자수	20/100명(2013)
도로포장률	45%(2011)	이동통신가입자수	140/100명(2013)

자료: CIA(2015),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5).

과테말라의 경제는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중미 국가 중 부유한 국가에 속한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 기준 전 세계 국가 중 80위를 기록하였고, 2014년 실질 GDP 성장률은 4.2%에 이르렀다. 특히 과테말라의 산업은 농업 및 1차 소비재 생산에 집중되어 있어 농업은 과테말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분야는 GDP의 13.7%를 차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은 전체 노동인구 중 32%를 차지

2) 메스티조(Mestizo)는 아메린디안과 스페인계의 혼혈인종임.

하고 있다. 과테말라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옥수수, 바나나, 커피, 채두류, 소두구,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며, 주요 수출 농산물은 설탕, 커피, 바나나, 과일 및 채소류 등이다. 과테말라의 주요 생산 농산물과 수출입 농산물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2. 과테말라 농업³⁾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과테말라는 빈곤률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특히,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에 따르면, 서부 고지대의 원주민 거주지역의 빈곤률은 76%이며, 27%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지역 5세 이하 아동의 만성 영양결핍 비율은 6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성 영양결핍의 주요 원인은 식량안보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식량생산 자원 부족과 식량구매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과테말라는 농업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농업분야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과 빈곤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테말라의 식량부족으로 인해 높은 빈곤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농산물은 과테말라 수출경제에서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과테말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3번째로 큰 설탕수출국으로 생산량의 3/4를 수출하고 있다. 설탕은 대부분 대농들에 의해 생산되며 제분공정시설도 자체적으로 구비 및 이용하고 있다. 반면, 과테말라에서 두 번째로 수출규모가 큰 커피 품목의 경우, 대부분 소농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최근 커피의 시장가격이 생산비용보다 하락하면서 1990년대 이후 10만 명 이상의 커피농가가 생산을 포기하였지만, 최근 다시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농가들은 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대체 품목이 등장하면서 과테말라에서 전통적으로 생산하던 품목에서 비전통 품목으로 이동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비전통 품목으로 깍지완두(Snow Pea),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멜론 등이 있으며, 깍지완두의 경우 과테말라의 비전통 수출농산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품목이다. 전통 품목인 옥수수의 생산비용보다 6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수익은 옥수수 대비 약 15배 높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생산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소농들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농업은 경제성장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이다. 과테말라는

3) 본 장은 USAID와 New Agriculturalist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기존의 농산물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품목을 발굴하며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과테말라 농업부 장관이 새롭게 교체되면서 농업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외화획득을 위하여 수출시장 개척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관개시설 확장 및 기술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9월 지식공유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사업의 일환으로 과테말라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 공유를 위한 현지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다. 2014년부터 과테말라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KSP사업을 통해 과테말라의 농업 과학기술 및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⁴⁾ 최근에는 과테말라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와 과테말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테말라의 농산물 생산현황과 수출입현황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과테말라 농축산물 생산과 교역

2.1. 농축산물 생산

2.1.1. 농산물

과테말라의 농산물은 주요 작물 생산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작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량은 주요 생산 품목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테말라에서 전통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인 사탕수수, 바나나, 설탕, 잡곡, 옥수수, 팜유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사탕수수의 생산량은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바나나 대비 10배 이상의 양을 생산하고 있다. 사탕수수, 설탕, 당밀과 같은 당류의 생산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테말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과일류는 바나나이며, 생산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플랜틴과 오렌지의 생산량도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파인애플, 수박, 레몬, 라임, 망고, 망고스틴, 구아바는 최근 4년 동안 비슷한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과테말라는 열대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대과일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후조건을 갖고 있지만, 그 외의 생산 환경이나 기술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증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과테말라 주요 생산품목 중 잡곡, 옥수수, 감자 등 식량작물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잡곡, 옥수수, 감자는 과테말라의 전통적인 생산품목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팜유 생산량은 200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는 품목이.

4) 전업농신문, 2015.1.29. (http://www.palnews.co.kr/board_view_info.php?idx=73520&seq=&seq2=1).

고, 토마토, 콩(건조), 기타신선채소, 양파(건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해 생산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커피의 경우, 2013년까지 농가의 감소에 따라 생산량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유일하게 맥주가 20위권 내에 속해있으며, 생산량이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로 주춤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서 제공한 과테말라 연간 커피보고서 2015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커피 재배면적은 국가 전체면적의 2.5%에 해당하는 27만 6,000헥타르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커피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커피 재배면적은 30만 5,000헥타르에 약 12억 주의 커피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커피 농가에서 아라비카 종을 생

표 2 과테말라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품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1~13 평균
사탕수수	16,552	18,008	22,314	20,586	23,653	26,335	23,525
바나나	955	1,231	2,637	2,680	3,079	3,188	2,982
설탕	1,632	2,015	2,495	2,346	2,464	2,753	2,521
잡곡	1,106	1,109	1,683	1,724	1,773	1,844	1,780
옥수수	1,054	1,080	1,634	1,675	1,723	1,795	1,731
팜유	320	540	940	1,260	1,440	1,480	1,393
감자	217	432	481	492	508	516	505
당밀	464	441	592	488	490	492	490
토마토	172	233	301	305	315	320	314
커피(생두)	312	248	248	265	273	253	264
파인애플	100	197	234	235	243	244	241
콩(건조)	91	83	196	200	220	228	216
플랜틴	265	245	193	189	198	197	194
맥주	92	82	172	177	165	170	171
오렌지	104	138	154	160	160	160	160
기타신선채소	130	157	145	149	152	152	151
양파(건조)	105	94	122	124	130	135	130
수박	126	142	125	128	130	128	129
레몬,라임	128	123	116	121	121	121	121
망고,망고스 틴,구아바	179	92	110	116	113	115	115

자료: FAOSTAT.

산해왔지만, 최근 3년 간 커피 잎녹병이 지속되면서 저지대 생산지역에서는 로부스타와 티모르 하이브리드 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잎녹병으로 인해 대부분의 과테말라 농가에서 곱팡이균에 저항 가능한 종으로 교체하고 있다. 재배면적의 약 10%는 커피나무 전지작업을 통해 개선하였고, 나머지 10%는 새로운 묘목으로 대체하였다. 2013년까지 커피 생산량이 감소해왔지만, 2015년도에는 약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과테말라 커피 생산 및 공급현황

마케팅 연도	단위	2013/14	2014/15	2015/16
시작연월		2013년 10월	2014년 10월	2015년 10월
재배면적	천 ha	276	305	305
수확면적	천 ha	266	295	300
총 커피나무	백만 주	1,209	1,189	1,200
총 생산	천 bag(60kg)	3,419	3,521	3,626
아라비카	천 bag(60kg)	3,404	3,506	3,611
로부스타	천 bag(60kg)	15	15	15
총 수입 ⁵⁾	천 bag(60kg)	81	83	85
총 공급	천 bag(60kg)	3,722	3,636	3,713
총 수출	천 bag(60kg)	3,140	3,234	3,331
국내 총 소비	천 bag(60kg)	550	400	375
원두 소비	천 bag(60kg)	400	300	275
액상커피 소비	천 bag(60kg)	150	100	100
연말재고	천 bag(60kg)	32	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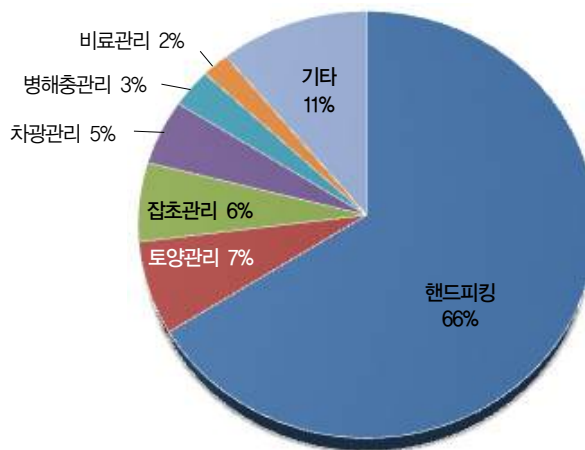
자료: USDA(2015),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앞서 언급했듯이, 과테말라의 커피 농가들이 생산비용 상승으로 커피생산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하였다. 커피 생산비용 중에는 수작업 노동비용(Hand Picking)이 포함되어 있는데, 커피열매 수확 시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수작업 비용은 전체 비용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커피 생산에서 병충해 관리, 살진균제, 제초제 사용에 대한 비용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재 중에서는 비료의 비율이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제초제, 살진균제 순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가격 하락 시, 커피 농가들은 생산비용을 줄임으로써 생산을 유지한다. 평균적으로 커피 농가에게 지급되는 가격은 1kg당 2.30~2.80달러이고,

5) 총 수입은 액상커피 수입량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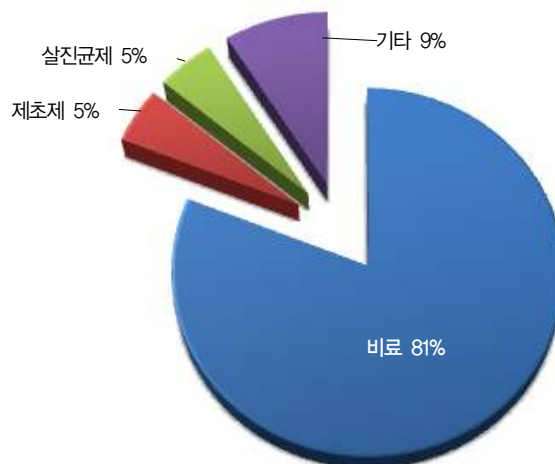
생산비용으로 1kg당 1.80달러가 소요된다. 실질적으로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양이 10g이라고 할 때,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가격과 농가에서 받는 가격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과테말라 이외에도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은 저개발 국가이다. 커피를 소비하는 선진국의 기업들이나 다국적기업과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가에 돌아가는 수익이 상승한다면, 소농들의 삶과 빈곤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과테말라 커피 생산비용 비중



자료: USDA(2015). 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의 내용 재인용.

그림 3 과테말라 커피 생산비용 중 투입재 비중



자료: USDA(2015). 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의 내용 재인용.

2.1.2. 축산물

과테말라의 축산물 생산량은 농산물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우유와 육류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10만 톤 이상 생산하는 축산물은 우유, 계란, 닭고기,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과 10만 톤 이상의 생산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테말라는 다양한 육류를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뿐만 아니라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말고기, 염소고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주로 생산하는 육류는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이고, 나머지 육류는 생산되고 있으나 생산량이 미미한 수준이다. 과테말라에서는 유제품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우유는 과테말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탈지우유, 치즈, 크림, 라드 등은 2011년 이후로 비슷한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연간 약 4,000톤이 생산되고 있는 천연꿀의 경우 생산량이 조금

표 4 과테말라 주요 축산물 생산현황

단위: 천 톤

품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1~13 평균
우유	267	411	463	463	484	496	481
계란	81	192	220	224	232	239	232
닭고기	140	151	184	190	190	192	191
쇠고기	62	63	79	81	83	83	82
돼지고기	31	67	59	60	62	62	61
탈지우유	10	8.5	27	28	28	28	28
치즈	8.5	11	14	14	14	14	14
소원피	8.8	8.9	11	11	12	12	11
크림	0.0	2.5	5.4	5.5	5.5	5.5	5.5
라드	3.6	3.6	4.4	4.4	4.4	4.4	4.4
천연꿀	1.4	3.0	3.5	3.5	3.6	3.7	3.6
염소우유	2.3	2.6	2.7	2.8	2.9	3.0	2.9
양고기	1.1	2.1	2.8	2.8	2.9	2.9	2.9
말고기	2.3	2.3	2.5	2.5	2.5	2.5	2.5
탈지분유	1.5	1.3	2.7	2.8	2.8	0.0	1.8
버터	0.6	0.6	1.4	1.4	1.5	1.5	1.4
염소고기	0.5	0.5	0.5	0.6	0.6	0.6	0.6
양원피	0.2	0.3	0.5	0.5	0.5	0.5	0.5
염소원피	0.1	0.1	0.1	0.1	0.1	0.1	0.1
벌집	0.0	0.1	0.1	0.1	0.1	0.1	0.1

자료: FAOSTAT.

씩 증가하고 있으며, 과테말라의 축산업은 대체적으로 기술과 생산성에서 뒤처지며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2.1.3. 유기농업⁶⁾

과테말라의 유기농업은 미국, 유럽, 일본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과테말라 농업축산식품부(The Guatemalan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Food, MAGA)에 따르면, 2014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9만 4,000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테말라의 유기농 시장 규모는 작지만, 과테말라 내에서도 건강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있다. 과테말라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인 미국 유기농산물 시장은 2014년 기준 전년 대비 16% 증가한 3억 5,91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온라인 유기농 쇼핑몰 나투라 푸드(Natura Foods Market)



자료: 나투라 온라인 사이트(naturafoodsmarket.com).

과테말라의 유기농업은 1999년 농업축산식품부에서 공포한 법령에 의해 국가 생태 농업위원회(Comisión Nacional para la Agricultura Ecológica, CNAE)가 개설되었다. 과테말라 생태 농업위원회는 중앙아메리카농업위원회, 지방정부, 사적인증기구 등과 함께 발전하였으며, 과테말라의 유기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길을 열었다.

과테말라의 유기농산물은 대부분 수출시장용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

6) 본 장은 USDA(2015)의 New opportunities for organix agriculture Guatemala를 바탕으로 작성함.

은 과테말라산 유기농산물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국내 유기농 생산자들이 국내 시장에 유기농산물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유기농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유기농산물은 월마트(Wal-Mart), 프라이스마트(Pricesmart), 라토레(La Torre)와 같은 대형 슈퍼마켓에 입고되고 있으며,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과테말라산 유기농제품뿐만 아니라 쿠키, 소스, 주스, 시리얼 등과 같은 유기농 가공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기농식품 전용 매장인 올가니카(Organica)와 프레스코(Fresko)에서 신선 및 가공 유기농식품을 판매하고 있고, 온라인 유기농 쇼핑몰인 나투라(Natura Foods Market)에서도 다양한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유기농 시장은 작지만,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외국인이나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구매자, 선진국에서 유기농 식품을 접한 경험이 있는 과테말라인 등이다.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과테말라에서도 유기농식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수입되는 유기농산물의 비중이 크다. 2014년도에 미국에서 수입된 신선 유기농 과일은 2,53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 종류로는 사과, 포도, 배, 핵과류, 건조과일 등이 있다. 과테말라 농업부는 매우 엄격하게 수입 유기농식품의 통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해충 통제와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과일에 대한 살균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5 마야셀트(Mayacert)에서 준수하는 유기농 인증



자료: (<http://www.mayacert.com/en/index.html>).

과테말라 내 유기농업을 실시하는 면적은 전체 수확면적의 1%에 불과하지만, 유기농업을 실시하는 농업인은 6,346명 정도로 적지 않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유기농 생산의 증가에 따라 유기농 인증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출용 유기농 인증을 받은 생산자는 146명, 과테말라 농업부에 등록된 유기 농가는 75개에 불과하다. 생산자는 매년 국내 인증기구나 국제 인증기구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대표 인증기

구로 마야설트(Mayacert)가 있으며, 마야설트는 소농부터 대농, 식품 가공업체 및 수출 업체의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과테말라에 본사를 두고 멕시코 서부, 중앙아메리카, 콜롬비아 지역에서 인증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야설트는 미국 농림부의 유기농 인증(NOP-USDA), 독일의 유기농 인증(DAKKS-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수질안전 라벨(Watersafe Label)의 인증절차를 따르며, 마야설트의 유기농 인증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과테말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유기농산물은 커피, 카르다몸, 마카다미아, 참깨, 꿀, 건조레몬, 홍차, 바나나, 카카오, 가공식품, 설탕 등이 있으며 커피와 참깨의 생산량이 각각 6,115톤과 4,200톤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과테말라 수출의 41%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교역대상국이지만, 유기농제품은 공식적으로 세번(HS Code)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역규모를 수치로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미국 내 과테말라산 유기농 식품과 과테말라 국내의 유기농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2. 농축산물 교역

과테말라 농축산물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00년대 이후로 꾸준히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농축산물 교역이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0.05%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농축산물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2000년 9억 3,501만 달러에서 2013년 22억 9,888만 달러까지 증가하며 농축산물 수출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농축산물 수입품목과 수출품목을 통해 우리나라가 과테말라에 수출 가능한 품목과 과테말라의 대 세계 수출의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과테말라 농축산물 무역수지

	단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1~13 평균
농축산물 수입	천 달러	612,312	1,138,697	1,812,312	2,197,561	2,245,485	2,313,696	2,252,247
농축산물 수출	천 달러	1,547,324	1,882,697	3,707,892	4,427,009	4,698,143	4,612,084	4,582,439
농축산물 무역수지	천 달러	935,012	744,000	1,895,580	2,229,448	2,452,658	2,298,388	2,330,192

자료: FAOSTAT.

2.2.1. 농축산물 수입

과테말라의 농축산물 수입은 2000년 이후로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2011년 이후로 20억 대 수입시장 궤도에 올라서면서, 2013년 23억 1,37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1억 이상의 수입규모를 갖고 있는 주요 품목은 옥수수, 기타조제식료품, 대두박, 대두유 식량 작물과 가공식품 등이 있다. 특히 옥수수는 전체 수입의 약 9.8%를 차지하는 가운데, 과테말라의 중요한 수입 품목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타조제식료품도 옥수수와 비슷한 수입규모로, 가공식품도 상당량 수입하는

표 6 과테말라 농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1~13 평균	비중 (%)
총 수입	612,312	1,138,697	1,812,312	2,197,561	2,245,485	2,313,696	2,252,247	100
옥수수	38,400	88,275	149,393	234,811	223,676	205,844	221,444	9.8
기타조제식료품	90,507	99,880	169,795	192,267	209,543	226,552	209,454	9.3
대두박	44,491	95,267	130,720	186,866	182,620	162,065	177,184	7.9
대두유	30,355	65,384	120,129	122,810	144,232	171,070	146,037	6.5
페스트리	11,258	43,600	87,696	102,462	85,781	94,359	94,201	4.2
시리얼	20,397	52,525	69,539	86,354	93,456	84,121	87,977	3.9
음료수	16,183	34,995	75,301	68,559	59,119	64,936	64,205	2.9
닭고기	16,785	31,208	46,073	56,185	58,460	69,706	61,450	2.7
면화	11,099	39,625	46,931	50,550	56,567	67,769	58,295	2.6
전지분유	25,838	31,188	46,241	60,676	56,053	50,808	55,846	2.5
쌀	39,705	45,213	49,457	49,457	59,475	46,925	51,952	2.3
치즈	7,734	21,290	33,504	32,988	41,061	42,262	38,770	1.7
설탕과자	7,078	16,677	28,355	32,926	39,246	43,136	38,436	1.7
음식물쓰레기	13,460	24,325	26,719	31,447	34,637	36,743	34,276	1.5
기타조제과일	2,228	16,425	19,342	29,001	24,274	32,106	28,460	1.3
수지(Tallow)	4,380	5,483	17,766	23,355	24,878	34,597	27,610	1.2
유아용식품	19,869	30,365	50,510	41,605	26,606	14,378	27,530	1.2
옥수수가루	4,991	23,475	25,961	27,925	21,959	28,682	26,189	1.2
밀가루	2,448	8,516	19,279	28,210	27,053	22,195	25,819	1.1
커피추출물	264	4,580	18,089	23,106	25,584	28,625	25,772	1.1

자료: FAOSTAT.

것으로 보인다. 과테말라에서 생산하는 축산물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닭고기, 전지분유, 치즈 등도 주요 수입품목에 속하며, 특히 닭고기의 경우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테말라 자체 생산량으로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테말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가공식품으로 기타조제식료품 이외에도 페스트리, 음료수, 설탕과자, 유아용식품, 기타조제과일, 커피추출물 등이 있다.

과테말라의 주요 농축산물 수입 대상국은 미국, 멕시코, 엘살바도르로, 주로 미국과 중남미 국가에서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옥수수는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 주로 수입하며, 기타조제식료품의 수입도 코스타리카, 멕시코, 미국에서 비슷한 비율의 수입규모를 보이고 있다.

대두유는 아르헨티나에서 주로 수입하며, 페스트리, 시리얼, 음료수는 엘살바도르 산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닭고기와 면화는 미국이 전체 수입

표 7 과테말라 주요 수입 품목의 수입 대상국(2013년 기준)

	1위	2위	3위
총 수입	미국 (42.1%)	멕시코 (12.2%)	엘살바도르 (9.8%)
옥수수	미국 (50.9%)	아르헨티나 (29.4%)	브라질 (16.4%)
기타조제식료품	코스타리카 (36.9%)	멕시코 (21.5%)	미국 (20.7%)
대두박	미국 (99.0%)	엘살바도르 (0.5%)	온두라스 (0.5%)
대두유	아르헨티나 (68.4%)	미국 (30.3%)	코스타리카 (1.1%)
페스트리	엘살바도르 (36.9%)	코스타리카 (24.7%)	온두라스 (13.3%)
시리얼	엘살바도르 (40.3%)	멕시코 (34.2%)	온두라스 (11.6%)
음료수	엘살바도르 (60.4%)	니카라과 (10.7%)	미국 (8.1%)
닭고기	미국 (96.8%)	엘살바도르 (1.8%)	온두라스 (1.4%)
면화	미국 (93.3%)	멕시코 (6.2%)	니카라과 (0.5%)
전지분유	니카라과 (50.1%)	코스타리카 (25.6%)	뉴질랜드 (16.3%)

자료: FAOSTAT.

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거의 독점적인 수입 대상국임을 알 수 있다. 전지분유는 니카라과에서 대부분 수입하며, 다른 품목과 달리 뉴질랜드에서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 농축산물 수출

과테말라의 농축산물 수출도 2000년 이후로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2011년 이후로 40억 대 수출시장에 진입하였고, 2013년 46억 1,208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1억 이상의 수출규모를 갖고 있는 주요 품목은 커피(생두), 설탕, 바나나, 팜유, 카르다뎀(carudamon), 천연고무(건조), 기타조제식료품, 기타멜론 등이 있다. 특히 커피(생두)는 전체 수출의 약 19.9%를 차지하는 가운데,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 품목임을 보여주고 있다. 설탕이

표 8 과테말라 농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1~13 평균	비중 (%)
총 수출	1,547,324	1,882,697	3,707,892	4,427,009	4,698,143	4,612,084	4,582,439	100
커피(생두)	575,002	464,150	713,885	1,062,969	958,108	714,971	912,016	19.9
설탕	190,781	236,581	725,232	648,659	791,995	940,871	793,842	17.3
바나나	167,451	238,100	357,402	444,310	583,945	611,698	546,651	11.9
팜유	14,255	30,401	125,740	215,628	252,438	269,807	245,958	5.4
카르다뎀	79,443	70,372	308,106	255,093	249,631	215,754	240,159	5.2
천연고무(건조)	13,154	50,704	163,858	286,596	210,379	167,505	221,493	4.8
기타조제식 료품	57,064	70,953	124,674	143,391	148,613	145,163	145,722	3.2
기타멜론	48,202	63,782	108,222	107,482	156,975	134,187	132,881	2.9
음료수	3,107	43,389	66,050	87,391	99,077	105,865	97,444	2.1
천연고무	15,102	30,168	72,760	109,549	83,623	71,241	88,138	1.9
페스트리	21,967	36,831	59,510	71,398	77,489	80,930	76,606	1.7
원료물질	43,487	54,493	60,412	62,682	69,212	70,471	67,455	1.5
담배 잎	42,757	26,308	51,786	52,799	56,182	83,983	64,321	1.4
설탕과자	6,062	22,057	40,206	53,182	58,189	62,051	57,807	1.3
음식물쓰레기	5,371	11,227	36,480	38,997	47,655	56,318	47,657	1.0
완두콩	10,512	25,967	33,757	38,756	49,473	49,759	45,996	1.0
당밀	5,241	22,080	42,702	54,462	40,315	36,768	43,848	1.0
참깨	18,315	26,918	33,763	28,386	31,943	49,662	36,664	0.8
컬리플리워, 브로콜리	20,508	22,167	28,093	35,530	44,177	26,858	35,522	0.8
플랜틴	7,844	23,042	26,912	31,425	34,239	39,431	35,032	0.8

자료: FAOSTAT.

커피의 뒤를 이으며 중요한 수출 품목임을 나타내고 있고, 바나나의 수출 비중도 전체 농축산물 수출 중 11.9%를 차지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비전통 농산물 중 수출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카르다몸의 수출규모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신선 농산물 중에는 기타멜론, 담배잎, 완두콩, 참깨, 컬리플라워와 브로콜리, 플랜틴이 수출되고 있으며, 가공식품 중에는 기타조제식료품, 음료수, 페스트리 등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테말라의 주요 농축산물 수출 대상국은 미국, 엘살바도르, 멕시코로 주요 수입 대상국과 같은 국가이며, 과테말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입에 비해 수출은 아시아, 유럽까지 진출하며 적은 규모이지만,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커피(생두)는 주로 미국으로 수출하며, 일본과 캐나다가 그 뒤를 이어 과테말라산 커피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은 중국과 한국으로 비슷한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바나나와 기타멜론과 같은 신선 과일은 95%이

표 9 과테말라 주요 수출 품목의 수입 대상국(2013년 기준)

	1위	2위	3위
총 수출	미국 (33.8%)	엘살바도르 (7.0%)	멕시코 (6.2%)
커피(생두)	미국 (45.8%)	일본 (17.0%)	캐나다 (9.6%)
설탕	중국 (16.3%)	한국 (13.1%)	칠레 (7.5%)
바나나	미국 (95.2%)	이탈리아 (2.6%)	네덜란드 (0.6%)
팜유	멕시코 (45.7%)	네덜란드 (22.7%)	엘살바도르 (13.1%)
카르다몸	사우디아라비아 (30.6%)	아랍에미리트 (19.6%)	요르단 (8.7%)
천연고무(건조)	멕시코 (30.7%)	미국 (21.9%)	칠레 (18.2%)
기타조제식료품	온두라스 (25.9%)	엘살바도르 (20.3%)	미국 (14.3%)
기타멜론	미국 (96.5%)	네덜란드 (3.0%)	엘살바도르 (0.3%)
음료수	엘살바도르 (39.0%)	온두라스 (32.7%)	니카라과 (11.8%)
천연고무	멕시코 (46.0%)	콜롬비아 (22.2%)	미국 (17.6%)

자료: FAOSTAT.

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팜유는 멕시코와 네덜란드로 주로 수출되며, 과테말라의 수출유망품목인 카르다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 중동지역으로 주로 수출되고 있다. 천연고무(건조)와 천연고무, 기타조제식료품과 음료수는 주로 인근국가인 중남미 지역과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대 과테말라 교역연황

우리나라와 과테말라의 교역수준은 매우 낮고, 교역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편이다. 과테말라의 주요 대 세계 수출품목을 우리나라에도 수출하고 있는 반면, 과테말라 시장 내 우리나라 수출 농축산물의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대 과테말라 수입 품목과 수출 품목은 매우 한정적이며 교역규모도 작지만 수출입동향을 살펴보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한다.

3.1. 농축산물 수입

과테말라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수입 대상국 중 25위로, 농축산물 수입 측면에서 대만 및 싱가포르와 비슷한 교역수준을 보이고 있다. 과테말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품목은 설탕으로 전체 수입의 88.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수입규모가 크게

표 10 우리나라의 대 과테말라 농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1~13 평균	비중 (%)
총 수입	28,447	5,804	68,899	110,836	49,310	134,501	98,998	100
설탕	28,091	5,721	49,009	99,088	39,595	123,149	87,277	88.2
커피(생두)	356	-	17,595	11,115	9,003	8,404	9,507	9.6
당밀	-	-	2,237	-	-	1,008	1,008	1.0
바나나	-	-	-	547	653	1,424	875	0.9
기타조제과일	-	-	-	-	-	140	140	0.1
카르다몸	-	8	-	3	1	349	118	0.1
원료물질	0	75	58	58	57	27	47	0.0
커피(원두)	-	-	0	25	-	-	25	0.0
커피대용품	-	-	0	-	1	-	1	0.0

자료: FAOSTAT.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설탕에 이어 커피(생두)가 전체 수입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와 카르다몸을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커피(생두) 이외에도 커피(원두)와 커피대용품도 수입하고 있으며, 꾸준히 수입되지 않고, 수입비중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농축산물 수출

과테말라는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중 49위로, 농축산물 수출 측면에서 벨기에, 그리스, 우즈베키스탄과 비슷한 교역수준을 보이고 있다.

과테말라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음료수로 전체 수출의 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테말라로 수출되는 품목은 주로 가공식품이며, 이는 과테말라까지 운송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되는 기타조제식료품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인 옥수수는 최근 수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시리얼의 경우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 수출이 급감하였고, 페스트리, 기타사과주, 커피대용품, 기타과실주스의 수출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 우리나라의 대 과테말라 농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1~13 평균	비중 (%)
총 수출	282	536	888	907	1,584	2,481	1,813	100
음료수	-	53	60	207	717	1,345	756	41.7
기타조제식료품	233	303	458	325	463	465	418	23.0
옥수수	-	-	-	-	-	132	132	7.3
원료물질	1	1	39	63	43	117	74	4.1
시리얼	-	15	43	52	68	32	51	2.8
페스트리	18	100	64	39	38	45	41	2.2
기타사과주	-	2	-	29	44	46	40	2.2
마카로니	3	1	31	27	56	12	32	1.7
카스터빈유	-	-	19	26	-	-	26	1.4
커피대용품	1	7	10	27	17	30	25	1.4
기타과실주스	4	0	-	6	8	39	18	1.0

자료: FAOSTAT.

4. 시사점

현재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남미와의 FTA협상을 진행 중인 시점에서 보았을 때, 과테말라와의 농축산물 교역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테말라 내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종류도 한정되어 있고,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테말라에서 수입할 수 있는 품목과 수입량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테말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인 설탕, 커피, 바나나, 카르다뭉의 수입량 변화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테말라 내에서 다양한 농업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과테말라는 현재 전통농업에서 비전통농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선진국들의 원조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관개시설 확장, 도로확충 등의 기반시설 구축과 농업기술전파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과테말라 국가차원에서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 지미 모랄스(Jimmy Morales)가 국가경제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과테말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유럽 레스토랑의 트렌드를 언급하며, 작은 사이즈의 채소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미니채소 시장의 수출확대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바나나 시장에서는 바나나보다 플랜틴이 성장하고 있고, 과테말라 내에서 외래종 과일들을 재배하기 위해 실험단계에 있다고 언급하였다.⁷⁾ 과테말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수출 정책은 가까운 미래에 과테말라 농업의 큰 성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를 통해 중남미 국가로 농축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중남미 지역은 거리 측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신선 농산물 교역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과테말라에서 옥수수 다음으로 많이 수입하는 품목이 기타 조제식료품인 만큼, 가공식품 및 반가공식품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과테말라의 경우 선박운송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신선도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곡물류나, 건조채소 등 중남미 국가의 수요와 선박운송기간에 따른 신선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 The Packer, 2015.12.21.

(<http://www.thepacker.com/shipping-profiles/central-american/caribbean/guatemala%E2%80%99s-new-president-embraces-ag-exports>).

참고문헌

CIA(2015). The World Factbook 2015. CIA.

USDA(2015a). New opportunities for organix agriculture Guatemala. USDA.

USDA(2015b). Coffee annual.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USDA.

수출입은행(2015). 과테말라 국가개황. 해외경제연구소. 수출입은행.

참고사이트

전업농신문 (www.palnews.co.kr)

FAOSTAT (www.faostat.fao.org)

Googlemap (www.google.co.kr)

Mayacert (www.mayacert.com)

Natura Foods Market (www.naturafoodsmarket.com)

New Agriculturalist (www.new-ag.info)

The Packer (www.thepacker.com)

The Worldbank data (www.data.worldbank.org)

USAID (www.usaid.gov)